

# 10년간 출전·타점 1위...“꾸준하다구요? 여전히 간절해요”

## KIA 타이거즈 최형우

안타·득점 전체 2위  
방출 경험, 초심 지키기 자양분  
허리 부상이 가장 큰 애로  
“올해도 간절하게 보내겠다”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이다. 그는 꾸준함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KBO리그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경기 출전한 선수가 바로 최형우이고, 그 만큼 많은 기록이 쌓였다.

2010년대 이후 기록으로 따지면 최형우는 1187경기에 나와 롯데 손아섭(1164경기), LG 박용택(1136경기)에 앞서 가장 오랜 시간 그라운드를 지켰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980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SK 최정(749타점), NC 박석민(720타점)에 앞서 타점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안타는 1483개로 손아섭(1480개)에 이어 2위, 757차례 홈을 밟으면서 득점 부문에서도 손아섭(839득점)에 이어 2위다.

그의 기록은 묵직하면서도 화려하다. 하지만 최형우는 늘 “해오다 보니까 이룬 기록”이라며 말을 아낀다. 많은 기록을 이룬 타자라고 하기에는 거창한 목표나 꿈도 없다.

지난 시즌에도 최형우는 꼭 집어 어떤 야구 목표나 지점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안 해봤던 것을 해보고 싶다”며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 하기는 했었다. ‘긴 머리’가 바로 최형우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올 시즌에도 최형우는 “야구에서는 신경 쓸 부분이 특별한 목표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최형우는 “야구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없다”며 “야구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전에는 꾸준함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큰 욕심은 없다”고 ‘하던 대로’를 언급했다.

욕심이 없었고는 하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이다. 큰 이별보다 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도 간절하게 달려왔다.

그는 지금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근원은 ‘간절함’



‘꾸준함의 대명사’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가 올 시즌도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서 주루와 수비 훈련을 하는 최형우.



이라고 말한다. 방출이라는 아픔을 겪어봤기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야구를 해왔고 그 간절함은 여전히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형우는 “간절하게 야구를 해왔다. 나처럼 방출돼서 뛰게 되면 간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옛날

부터 크게 아프지 않으면 감사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했다. 조금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간절하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간절함”으로 꾸준하게 달려온 최형우가 유일하게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허리’다.

지난 시즌 허리가 좋지 않아서 고전을 했던 만큼 허리 관리가 중점이다. 최형우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다.

최형우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내 야구와 남은

인생을 사는 데도 허리는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에 신경이 쓰인다”며 “허리 통증을 덜 수 있게 노력하면서 늘 그렇게 간절하게 올 시즌을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막내들의 거침없는 질주...광주 FC 쾌조의 스타트

K리그2 이랜드와 개막전 2-0 승  
‘승격’을 목표로 내세운 광주는 중요한 첫 판을 2-0 승리로 장식하면서 환호했다.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후반전에 추가골을 넣지 못한 게 ‘속의 타’였지만 광주는 기본 좋게 2019시즌의 스타트를 끊었다.

광주 FC를 웃게 한 막내들의 거침 없는 질주였다.

광주는 지난 3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2019시즌 개막전을 치렀다.

‘승격’을 목표로 내세운 광주는 중요한 첫 판을 2-0 승리로 장식하면서 환호했다.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후반전에 추가골을 넣지 못한 게 ‘속의 타’였지만 광주는 기본 좋게 2019시즌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날 1득점 1도움을 기록한 펠리페와 첫 경기서 마수걸이골을 터트린 ‘터줏대감’ 여름이 주인공이었지만, ‘금호고 듀오’ 엄원상과 이희균에게도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서울 이랜드전을 통해 프로에 데뷔한 광주의 투기들이다. 입단 전부터 기대를 모은 이들은 지난겨울 착실하게 2019시즌을 준비하면서 ‘포스트 나상호’를 찾던 박진섭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희균은 광양과 오키나와에서 전개된 팀 전지훈련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던 선수다. 연습경기에서 잇달아 골을 터트리며 선배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엄원상은 U-23 대표팀의 태극 전지훈련에 소집되면서 오키나와 전지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대표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부쩍 성장해 돌아왔다.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면서 이날 경기 전 박진섭 감독이 꼽은 ‘개막전 키플레이어’로도 이름을 남겼다.



광주 FC의 루키 엄원상(오른쪽)과 이희균

이희균은 개막전에서 선발로 펠리페의 왼쪽에서 먼저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고, 엄원상은 팀이 2-0으로 앞선 전반 39분 ‘조커’로 조기 투입되어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두 선수는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세밀함이 아쉬기는 했지만, 패기 넘치는 플레이와 특기인 스피드를 마음껏 과시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광주는 부지런히 움직인 막내들의 힘까지 더해 중요했던 첫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2019시즌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프로에서의 첫 날을 그라운드에서 보낸 두 루키는 경기 후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승리를 기뻐했다.

이희균은 “첫 데뷔전을 선발로 뛰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옆에서 형들이 긴장하지 말라고 많이 도와줘서 좋은 경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데뷔전 선발로 나선 소감을 밝혔다.

“특정부분이나 도움 장면에서 많이 아쉬웠다”며 자신의 데뷔에 ‘50점’을 준 엄원상은 “경기가 끝나고 (이)희균이랑 첫 데뷔전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웃음). 겸손하게 50점을 줬다”고 말했다. 또 “(다음 경기는) 홈경기니까 더 나은 플레이를 보여 드려야 한다. 다시 경기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데뷔 전처럼 적극적으로 하겠다. 형들이 옆에서 잘 도와 주니까 내 할 것만 하면서 득점 도움에 신경 쓰면 점수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타이거즈기 호남중학교 야구대회 오늘 개막

‘제13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가 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막한다.

KIA 타이거즈가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으로 오는 8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다.

광주 4개 팀 (동성중, 무등중, 진흥중, 충장중), 전남 5개 팀 (여수중, 이수중, 화순중, 세지중, 영산중), 전북 1개 팀 (이평중) 등 총 10개 팀이 참가해 13번째 우승을 다투게 된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우승팀과 2·3위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이 주어진다. 참가 전체 팀에는 야구용품이 증정된다.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한편 이번 대회는 호남지역의 야구 유망주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 야구 발전의 밑거름을 조성하고, 야구를 통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창설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펼 펼쳐 나는 이승우 벤투호 승선 가능성 UP

伊 세리에 2부리그 선발 출전...골대 강타 등 활발한 공격 주목

이탈리아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이승우(21·엘라스 베로나)가 풀타임 활약하며 소속팀의 승리에 힘을 보탤다.

이승우는 4일 이탈리아 베로나의 스타디오 마르 크 안토니오 벤테고디에서 열린 베네치아와 2018~2019시즌 세리에 B(2부리그) 27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며 1-0 승리를 거두었다.

이승우는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소속팀에서 주전 입지를 굳혀 오는 11일 발표되는 한국 축구 대표팀에 소집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볼리비아(22일), 콜롬비아(26일)와 각각 평가전을 치른다.

홈팀 베로나가 베네치아를 상대로 이룬 시간 득점하며 기선을 잡았다.

베로나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공세로 나섰고, 전반 18분 안토니오 디 가우디오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디 가우디오는 후반에서 길게 올라온 전진 패스를 받은 뒤 침착하게 마무리해 이날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승우는 전반 29분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어 오른쪽으로 강하게 찼지만 공이 골대에 맞으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후반에도 활발한 공격으로 1-0 승리에 기여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